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이 선두로 경판을 들고 미륵광장을 돌아 판전으로 이동했다. 봉은사 신도 500여 명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보수 불사의 원만회향과 소원성취를 발원했다.



총무국장 진경 스님(맨 앞)과 대중 스님들이 신도들이 가져온 경판을 판전으로 옮기고 있다.

봉은사 판전 156년 속살 드러내다

서울 봉은사, 판전 보수불사 회향 고불 이운식

추사 김정희가 세상을 떠나기 사흘 전 쓴 편액(扁額)으로 알려진 봉은사 판전(板殿)의 3개월여 보수 불사가 완성됐다.

서울 봉은사(주지 진화)는 12월 13일 경내에서 판전 보수불사 회향 고불식과 경판 이운식을 병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화 스님을 비롯한 사중 스님들과 신도 500여 명이 참가해 미륵전에 임시 보관됐던 경판을 판전으로 옮기는 이운식을 가졌다. 경판을 든 진화 스님이 선두로 영산전과 북극보전을 거쳐 미륵광장을 돌아 판전으로 이동했다. 이동하는 동안 신도들은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며 보수 불사의 원만 회향과 소원성취를 발원했다.

이러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전 뒷 마당에 습기가 생기고 경판과 탕화에 충해가 발생해 올해 7월 서울시 지정문화재 보존수리에 상정돼 8월부터 보수 사업을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진경 스님은 "판전에서 보관중이던 현판 3502판을 훈증(薰蒸) 소독했고, 공사 과정 중인 11월 13일 경판의 제작과 판전 건립을 기록한 상량문도 발견됐다"며 문화재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았다"며 "3개월 여간

현존 유일 화엄경소초판 봉안

3개월여 훈증·소독 등 보수불사

보수 중 판전건립 기록한 상량문 발견

진화 스님과 대중 스님, 그리고 강남구청과 봉은사 신도회분들이 심시일만으로 지붕해체 대보수 불사를 도와 원만하게 봉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추사 최후의 절필이 걸린 봉은사 판전

판전이란 불교 경전을 새겨 놓은 목판을 보관하는 건물을 말한다. 1856년 영기 스님(1820~1872)은 <화엄경수소연의본(華嚴經疏演義本)> 80권을 직접 손으로 베껴쓰고 이를 목판으로 찍어 인출하는 작업을 했다. 이 화엄경판이 완성되자 이를 봉은사에 안치하기 위해 법당을 지었다. 1896년 9월말 영기 스님은 판전 현판 글씨를 당시 봉은사에 기거하

던 추사 김정희(1786~1856)에게 부탁했다. 김정희가 쓴 현판의 크기는 세로 77cm, 가로 181cm이다.

김정희는 1852년(철종 3년)에 북청(北靑)의 유배지에서 풀려난 뒤 과천(果川)에 있는 과지초당(瓜地艸堂)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봉은사를 왕래하다가 1856년 10월 10일에 별세했다.

이 현판은 그가 별세하기 사흘 전에 썼다고 전해진다. 현판의 글씨는 어리숙하면서도 굳센 필세를 드러낸다. 특히 '殿(전)' 자의 왼배침을 끈게 내려 누른 점이 돋보인다. 말미에는 '칠십일과병중작(七十一果病中作, 71살 과천 늙은이가 병중에 쓰다)'라고 낙관했다. 꾸밈이 없는 절박(拙樸)한 글씨에서 김정희 말년의 청정무구한 심상을 엿볼 수 있다. 유홍준 교수는 현판 글씨를 "추사 최후의 절필"이라고 표현하며 "「板殿(판전)」 글씨를 보면 추사체의 줄(拙)함이 극치에 달해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판전에는 1857년(철종 8년)에 그려진 신중도(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30호)와 1886년(고종 23년)에 그려진 비로자나불화(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32호)가 모셔져 있다.

현존유일 화엄경소초판

판전에 보관된 경판인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 초목판'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84호)은 국내에 현존하는 유일한 화엄경소초판으로 역사적,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대방광불화엄경수소연의초>는 7세기 말 당나라 실차난타(實叉難陀)가 번역한 80권의 <대방광불화엄경>에 대해 정관 스님(澄觀: ?-839)이 주석한 것을 말한다.

전라도에서 태어난 영기 스님은 1855년(철종 6년) 가을 망월사에서 <화엄경>을 강의하다가 함께 공부하던 스님들과 함께 이를 판각(板刻)하기로 해 이듬해 9월에 완성했다.

당시 사용된 저본(底本)은 성종 스님(1631~1700)이 명나라 판본을 입수해 1690년(숙종 16년)에 간행한 것이었다고 한다. 경판은 모두 3,175매로 크기는 24.7×50.9cm이며, 한 면에 10줄씩, 각줄 20자씩 새겨져 있다.

이 경판은 19세기 중기의 것이지만 대승불교의 대표적 경전인 <화엄경>의 주석본으로서의 규모가 크고 희소성있는 불교 유산이다.

한편 보수 불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1월 13일 경판의 제작과 판전 건립을 기록한 상량문도 발견됐다. 회향 고불식에 앞서 최초로 공개된 판전 상량문은 가로 111.4cm×세로 91.8cm, 크기의 한지에 826자가 쓰여진 것으로, 기증종이로 된 봉합지에 싸여 상량구에서 발견될 당시 전혀 훼손이 없는 상태였다.

판전 건립 당시 지조 스님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상량문의 내용은 판전 내부에 걸려 있는 '경기도광주수도산봉은사화엄판전상량문' 현판과 동일하다.

봉은사는 상량문 사본을 제작해 보수불사 상량문과 함께 판전에 재봉안 했으며, 상량문 원본은 별도로 보관할 예정이다.

봉은사 측은 "보수를 진행하는 과정 중 지문위원을 통해 화엄경판의 가치가 부각됐으며 봉은사판전만의 독특한 판가의 구성과 기하학적 미감이 역시 새롭게 조명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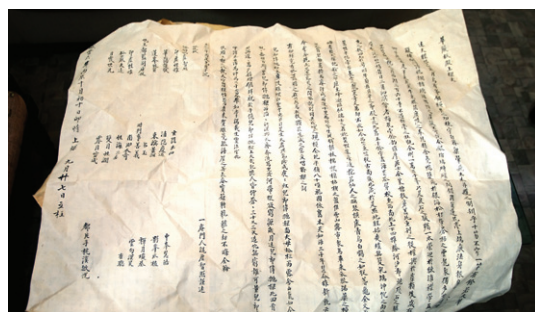
글=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운을 마친 스님들과 신도 500여 명이 고불식을 하고 있다.



판전내 벽면에 마련된 보관 선반에 이운된 경판을 쌓고 있는 모습



보수 불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1월 13일 경판의 제작과 판전 건립을 기록한 상량문도 발견됐다.

불교 공부사전

가 나 다 라
마 사 아 차
자 카 타 파 하

확실한 편지/국판 양장/404쪽/20,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되는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써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해탈장엄론

고귀한 가르침의 여의주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THE JEWEL ORNAMENT OF LIBERATION
The Wish-Fulfilling Gem of the Noble Teaching

감보빠 저, 진우기 역 / 신국판 양장 / 628쪽 / 28,000원

선과 뇌

선과 뇌 禪と腦

아리타 히데호 · 겐유 소쿠 저 / 이성동 옮김 / 국판 / 252쪽 / 13,800원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